



새 수목극 '군주-가면의 주인' 유승호

“백성을 위한 왕이 될 것이다”

김소현·김명수 등 호흡...내일 MBC 첫 방영

'미모'가 출중한 유승호(24)가 얼굴의 3분의 2를 가면으로 가리고 나온다. 이런 '남비'가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진다. '자체발광 오피스' 후속으로 오는 10일부터 방송되는 MBC TV 수목극 '군주-가면의 주인'에서 유승호는 가면을 쓴 왕세자로 변신한다. '군주'는 조선 시대 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선 팔도의 물을 사유해 강력한 부와 권력을 얻은 조지 편수회의 이야기와 그에 맞서 싸우는 왕세자의 의로운 사투가 펼쳐진다. 제작진은 8일 "조선 시대 청계 주변에 있던 샘터들이 각각 개별 소유주의 철저한 관리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재창조된 팩션 사극"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치와 멜로가 적절히 조합돼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주인공 이선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편수회와 전쟁을 벌이는 세자다. 유승호는 이선에 대해 "백성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착한 인성의 소유자"라며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세자는 편수회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면을 쓰게 된다. 유승호는 "눈하고 입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화가 난 건지, 짜증이 난 건지 감정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는 것보다 배로 오버를 많이 해서 연기를 했다"고 토론했다. 이어 "하지만 다행히 가면을 쓰고 촬영을 하는 게 많지는 않아서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부작인 '군주'는 지난 1월 크랭크인 해, 상당 부분 촬영을 마친 상태다. 그룹 인피니트의 '엘' 김명수가 세자와 이름이 같지만 천민인 이선을 연기한다. 천민 이선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정의 아들이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준 가은(김소현 분)에게서 글을 배우고, '이선'이라는 이름도 얻게 된다. 그런 그가 세자와 운명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세자의 대역을 맡아 연기하게 되고, 급기야는 진짜 왕까지 꿈꾸게 된다. 사랑이 빠질 수 없다. 김소현이 세자의 첫사랑이자 천민 이선과도 엮이는 한가은을 연기한다. 한가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참수한 세자에게 복수하려다 반대로 세자를 돕게 되는 인물이다. 무인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밝고 당찬 소녀다. 윤소희는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편수회 두목의 손녀 김화군을 연기한다. 이들 외에 허준호, 박철민, 전노민, 김병철, 정두홍, 김명수 등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절대 돈의 가치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주'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라며 "세자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 조선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개표방송 '최신 그래픽' 전쟁

KBS 스파이더캠...직접 보는 듯 생동감 전달
SBS 아이폰·페이스북 활용, 공감대 형성에 중점
MBC MR(혼합현실) 사용 역동적 느낌 살려

지상파 3사가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계 방송을 앞두고 최신 그래픽 기술을 총동원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KBS 1TV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스파이더캠'을 띄운다. 스파이더캠은 축구장 등에서 역동적인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KBS는 "스파이더캠으로 얻은 영상에 AR(증강현실)을 입혀 안방에서도 마치 광화문에 직접 나와 개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자신했다. 청와대를 구현한 VR(가상현실) 스튜디오도 볼거리 중 하나다. KBS는 VR 그래픽을 활용해 청와대 앞마당과 실내 공간을 현실처럼 구현, 청와대 안에서 개표가 이뤄지는 것 같은 화면을 연출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2012년 대선 때 개발한 그래픽 표시 시스템 '바이폰(VIPON : 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이번에도 최대한 활용한다.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단'을 아이폰 주인공으로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탄핵 등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감성적인 아이폰도 선보일 계획이다. SBS는 또 페이스북과의 제휴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연령, 지역,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이 대선에 대해 가진 생각을 빅데이터화해 방송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MR(혼합현실)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MR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별도 가상공간을 만드는 VR과 다르다. 현실에 가상의 물건을 띄운다는 면에서는 AR과 비슷하지만 현실감이 훨씬 높다고 MBC는 강조했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외벽도 상황판이 된다. MBC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후보들의 득표율이 게시됐던 것처럼 9일 오후 7시 40분부터 제2롯데월드 타워 벽에 실시간으로 선거정보를 노출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Channel, Program Name, and Additional Info. Rows include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rom KBS1, KBS2, MBC, and KBC/SBS.

Table with 4 columns: Time, Channel, Program Name, and Additional Info. Rows include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rom EBS 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14일 丙申).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corresponding predictions for each.